컴퓨팅센터 무산 불구 광주시, ‘AI 중심도시’ 실현 박차

姜시장, 전 직원 대상 공유회 열어
국가AI연구소·AI집적단지 지정 등
대한민국 AI 혁신 거점 완성 다짐
우상호 “李대통령 ‘광주시민에 송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관련 전 직원 공유회’에 참석해 “AI중심도시 실현에 대한 광주의 꿈은 굳건하다”며 미래 구상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에도 ‘AI중심도시’ 실현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관련 전 직원 공유회’를 열어 광주 AI 사업을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공유회는 단순 보고회가 아닌 ‘AI 중심도시’ 실현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자리였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의 아쉬움 속에서도 AI 중심도시 실현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졌다.

강 시장은 이날 전체 공직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허탈함 속에서도 광주의 AI 생태계는 이미 굳건히 자리잡았다”며 “AI 중심도시 광주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AI 1단계 사업을 통해 뿌리내린 광주의 AI 산업 생태계를 토대로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국가AI연구소 설립, 국가AI집적단지 지정 등 후속 전략으로 광주의 AI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혁신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AI 생태계는 이미 단단히 뿌리내렸다. 국가AI데이터센터 개관, AI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각종 실증장비 확보 등으로 광주는 국내 유일의 공공주도형 AI 생태계를 완성했다”며 “160개 기업이 광주에 들어왔고 65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는 우리 모두의 성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AX실증밸리 사업 6천억원을 확보했고 초거대 컴퓨팅 자원 확보, 국가AI연구소 설립, 국가AI집적단지 지정 등 다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우리는 2017년부터 AI산업의 개척자로 나섰다”며 “AI중심도시 광주의 꿈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났지만 분명한 목표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공약은 대규모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광주의 AI 생태계 완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광주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광주시민들에게 송구하다. 광주를 미래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 광주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은진 기자

이개호, ‘광주 군공항 이전’ 국민연금 투자 제안

“지방재정 한계 극복 위해 참여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의 미래 100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연금의 수익성도 확보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현재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사업 재원 일부를 맡아 매입형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투자에 나선다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얻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 상생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회적 가치와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공공적 자금 운용기관”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원을 해외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 인프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돈이 국민과 지역으로 돌아가는 공공투자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은 ‘연금형 공공투자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지역 공공투자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의회 ‘AI 특위’ 출범…위원장 강수훈

광주시의회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회복과 AI 실증 생태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AI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수훈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월 의원을 선임했다.

AI특위는 최근 삼성SDS가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신청에서 광주를 배제한 것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AI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AI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지난 5년 간 광주가 추진해 온 AI 1·2단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AI 실증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 활동을 꼼꼼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는 이미 AI 산업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두루 갖춘 도시”라며 “지역 AI 기업과 연구기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며 광주가 AI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강수훈·박수기·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채은지·홍기월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3월31일까지 활동한다. /변은진 기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용하세요”

道, 30일까지 집중 사용 기간 운영

전남도는 26일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사용 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등 4천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해 약 23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된다.

꾸러미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80여종이 포함된다. /양시원 기자

전남 청소년박람회 성료

전남도가 주최하고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행복성장협의체가 주관한 2025 전남도 청소년박람회가 지난 25일까지 이틀간 도청 앞 도민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청소년박람회는 ‘제29회 전남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주축인 청소년기획단이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사회 진행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박람회는 ‘청소년이 신나게! 전남이 반짝이게!’라는 주제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주제 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됐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청소년이 꿈을 찾고,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도가 청소년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CMYK